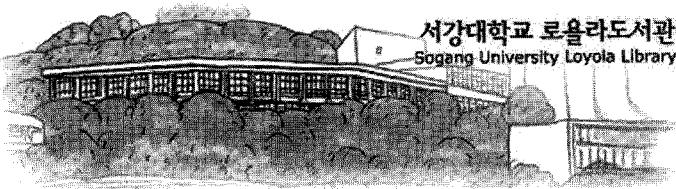


서강대학교의 심장 ‘로욜라도서관’을 만나다

도서관에 보물이 숨어있다?
도서관이 보물이다?

무덥고 번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는
8월의 어느 날, 보물이 숨어있다는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을 찾았다. 오랜만에 찾은 대
학은 방학 중에도 여전히 학구열로 불타는 학생들과
여름의 싱그러움이 공존하며 교내에 둑둥 떠다녔다.
정문에서 오르막을 올라가니 풀냄새로 휙감긴 로욜라



▲ 법학전문도서관

지속적이고 상시 운영하는 이용자 교육

‘최적의 정보를 최고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도서관’
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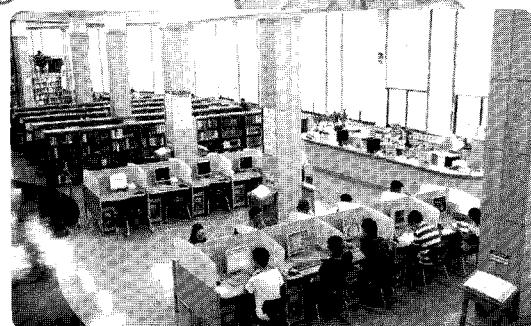
도서관을 만날 수 있었다.

로욜라도서관은 1960년 서강대학교 개교와 더불어 본관 2층에서 출발하여 1974년 우리나라 최초의 개가 제 도서관으로 개관하면서 예수회 창설자인 이냐시오 로욜라 성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로욜라도서관으로 이름을 명명하였다. 1982년 2관, 1997년 3관을 준공하여(3관 4층, 5층은 법학전문도서관) 90만여권의 일반도서, 6,000여종의 정기간행물, 4만여권의 참고자료, 각종 마이크로형태 자료, 시청각자료, 귀중자료, 웹 DB, 전자잡지(e-Journal), 전자책(e-Book)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보유한 도서관으로 발전했다. 좌석은 약 2,500여석의 일반좌석과 대학원생들이 논문작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4개의 개인용 열람석(Carrel)도 보유하고 있다.

용자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용자 교육을 크게 신입생 및 편입생을 위한 이용 교육, 신임교수 이용 교육, 재학생 및 모든 이용자 이용 교육으로 나누어 운영



▲ 주 출입구(1관)



▲ 정보서비스존(1관)

한다. 신입생 및 편입생을 위한 이용 교육은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15회에 걸쳐 비디오 상영교육, 도서관 소개·투어교육, 서비스 소개교육 및 도서관 이용 자료 배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학기 초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와 인쇄·전자 자료 이용 방법, 도서관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강사진을 위한 비정기적 특강도 실시한다. 재학생 및 모든 이용자에 대한 교육은 매월 2회의 정보검색특강, 도서관 서비스 DB에 대한 이용 교육, 담당교수의 요청에 의해 도서관 자료 이용방법 및 서비스에 대해 교육하는 수업연계특강과 교내 학과나 타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교과목과의 연계수업 특강은 2009년 2학기에 계열별 글쓰기 등을 70회(1,701명), 2010년 1학기에 읽기와 쓰기 등을 24회(1,063명) 진행하였다. 2009년 2월부터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이용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09학번부터는 자료를대출하려면 필

수적으로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2009학번은 총 1,882명 중 1,407명(74.8%), 2010학번은 현재 총 1,932명 중 1,138명(58.9%)이 이수했다.), 도서관 안내와 자료 검색, 서비스 등을 한글 또는 영문버전으로 40분간 이용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75년부터 교양과정의 정규 교과목으로 '도서관정보검색법'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과목은 도서관 사서가 직접 학기단위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의 주 이용층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도서관 활용법을 안내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본 수업을 통해 학부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신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개선하였고, 사서를 보는 시각이나 태도 변화는 물론 사서 자신들의 동기 유발을 통한 재교육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과 사서의 유대관계가 한층 높아져,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의 선진사례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용자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

1978년 아래 28회째 진행하고 있는 교내 도서관주간(10월 마지막주 ~ 11월 첫째주) 행사는 도서관의 기존 서비스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학내의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도서관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작년에는 '로욜라와 함께 추음(秋音)을'이라는 주제로 학내 댄스동아리의 공연과 커피와 관련된 전시 및 시음회, 대출대에서 바코드스캐너로 이용자들이 직접 도서 반납 업무를 해 보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올해에도 11월 중순에 '로욜라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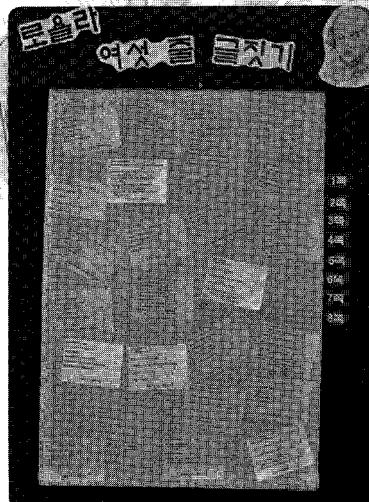


▲ U-Dream 풀



▲ 필독서 서가

6행시 짓기, 사진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대학에서의 도서관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용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대학 내 도서관 이용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 관련 기기 및 시설을 갖추고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의 자료 대출을 위해 일정금액의 예치금과 연회비를 받고 도서대출증을 발급하여 졸업 후에도 교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 6행시 짓기 게시판(교내 도서관주간 행사)

록 하고 있다. 또한 여러 대학(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도서관들과 협정을 맺어 상호대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대학도서관에서도 서강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개방도 하고 있다. 2009년 10월부터는 인근에 있는 마포구립서강도서관 회원 중 우수회원은 “마포서강회원” 신분으로 서강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1996년부터 마포구 내에 초·중·고교 교사 역시 도서관 내 자료 열람과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도서관 서비스는 도서관을 설립할 때 이미 선진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꾸준히 관리 해 온 결과이다.

특화된 장서와 건물 관리

도서관의 역할은 자료와 정보를 보관하는 기능보다는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도서관 장서에 있어 복본을 최소화하여(도서 별로 2권씩만 소장) 장서수 보다는 도서의 회전율을

신경쓰며 운영하고 있다. 폐기한 장서는 신설도서관이나 학생들에게 기증하거나 판매하는 등 다양하게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예수회와 프랑스예수회에서 기증한 15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의 종교 및 철학 관련 도서 4,800여종과 영국문화원의 폐관시 소장하고 있던 도서를 기증받기도 하였다. 이는 도



▲ 네덜란드 · 프랑스 예수회에서 기증한 도서

서관을 이용하는 영어영문전공자와 종교 및 철학 관련 전공자에 대한 이용서비스 강화에 기반이 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보물745-1호인『월인석보』 등 다수

의 고서 자료도 소장하고 있다.

도서관 공간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개별적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에 힘쓰고 있으며, 열람실을 교내 다른 건물에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다. 추후 건물 신축 시에도 계속적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의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 사서의 재교육을 통한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든 등 내부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각종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도서관 발전전략 수립, 그리고 대외홍보 활동 등 대학内外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운영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도 로욜라도서관의 특징 중 하나이다.

로욜라도서관에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준 사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도서관 사서로서 해야 할 일을 강조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용자는 백지상태다. 이용자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도서관 자료에 접근하는지 등 이용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용자의 다양하고 구체적 요구에 응답하며, 이용자 스스로가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 사서의 일이다.”

로욜라도서관에서 우리가 찾은 보물도 바로 이런 생각으로 서강대학교의 심장이 되고 있는 사서들이 었다. 

■글 · 사진: 유태형, 강원영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

전화 : 02-705-8195

홈페이지 : <http://library.sogang.ac.kr>



▲ 도서관 전경